CHOSUN UNIVERSITY 1946

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CHOSUN UNIVERSITY 1946

[UCI]I804:24011-200000236234

2008年2月 教育學碩士學位論文

日本語 形式名詞こと・もの・の用法比較에 關한 研究

吳 炯 如

CHOSUN
UNIVERSITY
1946

2008年 2月
教育學碩士(日本語教育)學位論文

日本語 形式名詞「こと・もの・の」用法 比較에 關한 研究

朝鮮大學校 教育大學院

日本語教育專攻

吳 炯 如

CHOSUN
UNIVERSITY
1946

日本語 形式名詞「こと・もの・の」用法 比較에 關한 研究

A Study on Comparing the Usage of Japanese Bound Nouns「koto, mono, no」

2008年 2月 日

朝鮮大學校 敎育大學院

日本語敎育專攻

吳 炯 如

CHOSUN UNIVERSITY 1946

日本語 形式名詞 「こと・もの・の」 用法 比較에 關한 硏究

指導敎授 朴 青 國

이 論文을 敎育學碩士(日本語敎育專攻)學位
請求論文으로 提出함.

2007年 10月 日

朝鮮大學校 敎育大學院

日本語敎育專攻

吳 炯 如

CHOSUN
UNIVERSITY
1946

吳炯如의 敎育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朝鮮大學校 副 敎 授 정 의 상 印

審査委員 朝鮮大學校 敎 授 조 영 석 印

審査委員 朝鮮大學校 敎 授 박 청 국 印

2007年 **12**月 日

朝鮮大學校 敎育大學院

CHOSUN UNIVERSITY 1946

목 차

ABSTRACT ····· ii
제 1 장 서 론 ····· 1
제 2 장 형식명사의 정의 및 특성 ····· 4
제 1 절 선행연구 및 용어의 정리 ····· 4
제 2 절 형식명사의 특성 ····· 8
제 3 장 형식명사「こと」「もの」「の」의 의미 및 용법 ····· 11
제 1 절 실질명사로서의 의미 및 용법 ····· 11
제 2 절 형식명사로서의 의미 및 용법 ····· 14
1. 실질명사의 대용 ····· 14
2. 선행하는 연체수식어구(절)의 체언화(명사화) ····· 18
제 4 장 형식명사「こと」「もの」「の」의 용법 비교 연구 ····· 23
제 1 절 「こと」와「もの」의 비교 ····· 23
제 2 절 「こと」와「の」의 비교 ····· 28
제 3 절 「もの」와「の」의 비교 ····· 35
제 5 장 형식명사「こと」「もの」「の」의 선・후행 요소 비교 ····· 37
제 1 절 선행요소 비교 ····· 37
제 2 절 후행요소 비교 ····· 38
제 6 장 결론 ····· 42
참고문헌 ····· 45

CHOSUN UNIVERSITY 1946

ABSTRACT

A Study on Comparing the Usage of Bound Nouns 「koto, mono, no」

Hyung-yeo Oh

Advisor : Prof. Chung-guk Park, Ph.D.

Major in Japanese Language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In general, bound nouns are defined as the nouns which can't be used without modifying elements because they belong to nouns but they cannot used independently and have no specific meanings. The characteristics of these bound nouns are as follows: First, bound nouns can't be used by itself. Second, sentences can be formed only if adjectival modifiers come before bound nouns. Third, bound nouns which have the meaning as free nouns keep the meaning inside.

The meaning and usage of the bound nouns, 「koto」 「mono」 「no」 were largely divided into the meaning and usage as free nouns and those as bound nouns. First, as the former case, 「koto」 meant an event or a situation which occurs in our daily life, and 「mono」 meant an unchangeable object, goods or material, as a free noun, respectively. Next, the latter could be subdivided into two kinds again: one was the usage of substituting for free nouns, and the other was the usage of nominalizing the antecedent phrases or clauses by adjectival modifiers.

CHOSUN UNIVERSITY 1946

In the usage of substituting for free nouns, 「koto」 was used in expressing abstract facts and it meant ①expressible contents, meaning, cause ②a phase, a phenomenon, an event in the world ③contents, a fact about an object ④a situation, condition ⑤behavior, an action, etc. 「mono」 was used in expressing the object that are specific and can be taken hold of sensuously or a thing and it meant ①a thing, goods ②the contents of words(kotoba), writings or sentences ③reason, sense ④property ⑤a person ⑥a monster, departed soul, a ghost, etc. In the usage of nominalizing the antecedent phrases or clauses by adjectival modifiers, 「koto」 changed the antecedent modifier into the substantives, which could signify every kind of case. And 「no」 as well as 「koto」 had the usage of nominalizing the antecedent phrases or clauses, but it gave no meaning to adjectival modifiers. Comparing the usage of the bound nouns 「koto」 「mono」 「no」 with each other, we could elicit the following: First, in the case of 「koto」 and 「mono」, the object of 「koto」 was expressed as a concept like an action, a process, a change, a state, an attribute represented by a verb or an adjective, and 「koto」 was general and expressed the contents of speech, knowledge, and the object grasped by thought, while 「mono」 was individual and it was grasped by sense and mental process.

Second, in the case of 「koto」 and 「no」, if the predicate of the main clause was a verb which means 「transmission」, 「will」, 「thought」, only 「koto」 was permissible, and if it was a verb which means 「perception」, 「specific action」, only 「no」 was permissible, and also if it was a verb which means 「recognition」, both 「koto」 and 「no」 was permissible.

Third, in the comparison of 「mono」 and 「no」, 「mono」 and 「no」 were used separately according to the contents that could be general or selective and individual.

Finally, examining the precedent and subsequent elements of the bound nouns

CHOSUN UNIVERSITY 1946

「koto」「mono」「no」, the following was found: the precedent elements included i-adjectives, na-adjectives, verbs, adjectival modifiers, postpositions, auxiliaries, etc. and the subsequent ones included verbs, case postpositions, conjunctive postpositions, supplementary postpositions, ending postpositions, subjunctive expressions, etc.

CHOSUN UNIVERSITY 1946

제 1 장 서 론

일본어에서 형식명사는 명사이기는 하지만 실질적 의미를 가지지는 못하고, 항상 실질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어구를 수반해서 사용되는 명사이다. 이러한 형식명사가 일본어의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화자의 의지를 전달하거나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나 뉘앙스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외국어로써 일본어를 가르치는 일본어 교사나 학습자들은 물론이고 일본어를 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더불어 형식명사의 용법을 완전하게 습득한다는 것은 일본어 학습자가 초보적인 단계에서 일본어를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기 위하여 거쳐야 할 중요한 과정이라는 것도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식명사의 다양한 종류와 다양한 용법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적절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 특히, 많은 형식명사 중에서도 자주 사용되어지며 그 의미와 용법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는 것 중에「こと」「もの」「の」가 있다. 이들「こと」「もの」「の」는 형식명사 가운데서도 일본어에 자주 등장하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용법이 다양하여 그것을 구별해서 사용하는 것 또한 쉽지가 않다.

게다가 형식명사「こと」「もの」「の」는 혼용이 가능한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어 그 쓰임새를 올바로 사용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또한 혼용이 가능할지라도 형식명사「こと」「もの」「の」사이에 뉘앙스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이해와 적절한 설명이 필요하다.

그리고 형식명사「こと」「もの」「の」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기능과 용법을 접하고 학습할 기회가 필요한 데 반하여 현재의 문법책이나 관련 서적에서 형식명사「こと」「もの」「の」의 다양한 기능과 그것에 관한 구체적 설명을 찾기가 힘들다.

위에 나타난 문제점을 인식하여 형식명사「こと」「もの」「の」가 가지고 있는 의미와 용법을 제대로 파악하고 구별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CHOSUN UNIVERSITY 1946

따라서 본고에서는 형식명사에 관한 정의와 특징을 검토하고 그 중에서도 형식명사에서 자주 쓰이고 혼동하기 쉬운 「こと」「もの」「の」의 본질적 의미와 용법을 다루어 「こと」「もの」「の」서로 간에 나타나는 차이를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형식명사는 많은 학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연구되어 왔다. 본고에서는 형식명사「こと」「もの」「の」의 정의를 살펴보고 그 각각의 의미와 용법을 파악하여 형식명사「こと」「もの」「の」가 서로 바꾸어 쓸 수 있는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를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の」의 경우, 학교문법과 일부 학자들의 경우 형식명사로 포함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の」가 형식명사로서의 기능인 연체수식어구(절)을 받아서 선행문을 명사화시키는 용법을 가지고 있으며, 자립적, 독립적으로 사용불가능하기 때문에 형식명사로 인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바, 松下大三郎의 학설을 인정하여 「こと」「もの」와 함께 그 의미와 용법을 고찰하고자 한다.

형식명사「こと」「もの」「の」의 의미와 용법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용례를 파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자료와 방법을 사용하도록 한다.

1. 자료로는 일본의 신문 사설과 칼럼, 일본성서(신공동역) 신약편, 일본어 중학교 교과서를 포함하여 애니메이션, 드라마, 일본영화 등을 참조하도록 한다.
2. 연구방법으로는 각 자료에서 형식명사「こと」「もの」「の」를 발췌하여 용례로 사용했다.
3. 형식명사「こと」「もの」「の」에 조동사「だ」가 붙은 형태로 성립되어진「ことだ」「ものだ」「のだ」가 하나로 정리되어 고정된 표현으로 문말에 오게 되면 그 연결 전체가 하나의 문말사 같은 역할을 갖게 되어 그 의미 용법이 별개의 독립적인 연구 대상으로 파악되어지므로 본고에서는 제외시킨다.

   외형적인 모습으로는 형식명사「こと」「もの」「の」의 사용법으로 보여지지만 접속조사 형태로 굳어진 「ものの、もので、ものなら、ものを」등도 연구범위에서 제외시키고자 한다.

CHOSUN UNIVERSITY 1946

그리고「こと」의 관용적 표현인 「~ことがある、~ことはない、~ないことはない、~ことができる、~ことはできない、~ことになる、~ことにする、~ことになっている、~ことにし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ことは~が、~ことには~」 등은 고정된 표현을 가지므로 쉽게 알 수 있고, 혼용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본고에서 제외하도록 한다. (단, 참고적으로 언급하는 경우가 있음.)

조선대학교 CHOSUN

CHOSUN UNIVERSITY 1946

제 2 장 형식명사의 정의 및 특성

제 1 절 선행연구 및 용어의 정리

일반적으로 품사로써 형식명사는 명사에 속하나 단독으로 사용할 수 없고, 독자적인 기능을 가지나 구체적 의미를 지니지 못하여 수식요소가 없이는 사용할 수 없는 명사이다. 또한 형식명사는 일본어에서 폭넓은 이해와 주의를 필요로 하는 말이며, 자주 사용되는 말이다. 그 만큼 형식명사에 대한 학자들의 정의 또한 다양하다. 그 중 대표적인 학자들의 선행연구를 통하여 형식명사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1) 松下大三郎

형식명사의 연구에 있어서 대표적인 학자로는 松下大三郎가 있다. 그는 처음으로 형식명사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松下大三郎는 형식명사가 2종류 존재한다고 했으며, 제1종 형식명사는 連體語 아래에서 사용되어지는 형식명사라고 했으며 「こと」「もの」「の」「わけ」「はず」「かた」「所以」등이 이에 속한다. 명사와 병렬적으로 사용되는 형식명사인 제2종 형식명사는 「など」「なぞ」「なんど」「なんぞ」「なんか」5개가 이에 속한다고 하였으며「なんか」는 구어에서만 사용된다고 하였다.

松下大三郎는 형식명사에 대해서 “형식명사는 명사로써의 형식적 의미가 있을 뿐 실질적 의미는 없는 명사이다. 형식명사는 매우 미묘한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다. 일본어에서는 형식명사가 매우 많다. 이것은 일본어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점에 있어서 일본어의 명사는 독특하게 발달을 거듭해왔다고 할 수 있다” 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다.[1)]

1) 松下大三郎, 『標準日本口語法』(勉誠社, 1977), p. 82.

CHOSUN UNIVERSITY 1946

2) 山田孝雄

山田孝雄는 명사 중에서 형식명사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명사 가운데서도 특별한 성질을 가진 것으로써 자연히 이러한 오인도 나오게 되는 것이다. 즉 특별한 성질을 가진 다는 것은 첫째 그 의미가 매우 광범위하고, 독립해서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를 자세히 설명하기 힘든 것이다. 둘째 사물의 관계를 추상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더불어 형식명사의 예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2)]

「故」「爲」- 사물의 이치와 도리를 나타낸다.

「時」「間」「處」「事」「物」- 보통의 형식을 나타낸다.

「ほど」「くらい」「ころ」- 사물의 정도를 나타낸다.

「件」「條」- 사물의 열거적 형식을 나타낸다.

3) 時枝誠記

時枝誠記는 형식명사를 “개념의 내용이 막연하다는 점에 있어서 접미어에 매우 가까운 것”이라고 하며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말로써 어떤 개념을 표현하는 것임에는 틀림없지만, 단지 그 개념이 지극히 추상적 형식적이기 때문에 항상 그것을 보충하고 한정시켜 줄 수식어를 필요로 하는 명사이다. 이러한 형식명사가 표현하는 개념내용이 막연하다고 보는 점에서 접미어에 가까운 것이지만, 다른 점은 접미어는 다른 말과 결합해서 하나의 복합어를 구성할 수 있는 것에 비하여 형식명사는 다른 말에 대한 접속 관계는 독립한 명사처럼 이용되어지지만 그것만으로 독립해서 이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점이다.」[3)]

4) 佐久間　鼎

---

2) 山田孝雄, 『日本文法論 (宝文館出版, 1994), pp. 183~186.
3) 時枝誠記, 『日本文法口語論編』(岩波新書, 1950), p. 76.

CHOSUN UNIVERSITY 1946

佐久間　鼎는 형식명사를 명사적인「吸着語」로 표현하였고,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무언가 구체적인 내용을 나타내는 다른 어구를 수반하여, 그것과 함께 어떤 품사 자격을 얻는 것, 앞에 오는 어구에 무언가의 품사의 자격을 주는 것, 완전히 자립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의 보충어나 구를 필요로 하는 것, 하나의 구 또는 절을 받는 종류의 말을 하나로 정리하여 흡착어라고 한다.」

또한, 「の」「ほど」「ぐらい」「ばかり」「まで」등도 형식명사 또는 거기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4)]

이러한 형식명사를 1)사람에 관한 것, 2)물건에 관한 것, 3)사안에 관한 것, 4)사태나 양태에 관한 것, 5)장소에 관한 것, 6)정도를 나타내는 것, 7)사유나 이유를 나타내는 것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5) 橋本進吉

橋本進吉는 「こと」「もの」「ところ」「かた」「件」등은 형식명사로 인정하는 반면「の」「ほど」「だけ」「ばかり」를 준체조사[5)]로 인정하는 점이 독특하다.[6)]

6) 金田一春彦

金田一春彦는 다음과 같이 형식명사에 대해 정의하고 있다.

「형식명사는 무언가 앞에 보충하는 말을 수반하지 않고서는 사용될 수 없는 명사로, 그 의미는 일반적으로 매우 추상적이다.」

그리고 "형식명사 중에서는 항상 일정한 문맥 안에서 사용되어 전후의 어구와 함

---

4) 佐久間　鼎, 『現代日本語法の研究』(くろしお出版, 1991), pp. 324~325.

5) 安田吉実외 3인, 『민중 엣센스 일한사전』(민중서림, 2004), p.1098.
준체조사는 여러 가지 말이나 구에 붙어, 전체를 체언과 같은 작용을 하게 하는 조사 로써 '話すのを聞く・見てからにする'의 'の'・'から'등이 있으며, 준체언조사라고도 한다.

6) 橋本進吉, 『国語法研究』(岩波書店, 1967) 참고.

CHOSUN UNIVERSITY 1946

께 하나의 조동사 또는 조사와 같이 사용되어지는 것도 있다."라고 하였다.[7] 형식명사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もの」「まま」「ため」「こと」「わけ」등이 있다고 하였다.

7) 森田良行

森田良行는 다음과 같이 「こと」「もの」에 대하여

"「こと」는 언어에서 나온 말이며 말로써 사고하고 말로써 서술되어진 의식의 대상이다. 말은 인간을 중심으로 한 생활행동의 하나이기 때문에 「こと」도 당연히 인간을 중심으로 한 인간 대 인간, 인간 대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다양한 사건을 의미한다. 감각기관에 의해 파악되어져 고정된 객관적인 존재는 「もの」이다." 라고 서술하면서 「こと」「もの」에 대한 기본적 차이를 언급하였다.[8]

8) 寺村秀夫

寺村秀夫는 「こと」「もの」에 대한 관계를 다음과 같이 나타내고 있다.

"「こと」의 대상은 명제로 표현되는 내용과 동사・형용사로 표현되는 동작, 작용, 변화, 상태, 속성 등 일반적인 개념으로 표현되는 것이다. 「もの」가 개별인 것에 비하여 「こと」는 일반적, 「もの」가 감각기관에 따른 심리작용에 의해서 파악되는 대상인데 비하여 「こと」는 사고에 의해 파악되는 대상, 발화, 지식의 내용을 나타낸다."[9]

9) 奥津敬一郎

奥津敬一郎는 "「の」는 모든 명사를 포함하고 있는 듯한 가장 의미가 넓은 명

---

7) 金田一春彦, 『日本語セミナー　二』(筑摩書房, 1983), p.214.
8) 森田良行,『基礎日本語』(角川書房 ,1980), p.147.
9) 寺村秀夫,『日本語のシンタクスと意味Ⅱ』(くろしお出版, 1984), p.293.

CHOSUN UNIVERSITY 1946

사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の」는 「こと」와「もの」와는 다르게 어휘적인 의미는 갖추지 않고 앞의 내용을 체언화 하는 문법적인 기능을 갖추고 있다. 즉, 「の」는 다양한 의미를 가진 명사이지만 실질적 의미를 가진 용법으로는 쓰이지 않는다는 것이다.10)

이상과 같이 여러 학자들에 따라 형식명사의 정의와 종류는 조금씩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여러 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형식명사란 실질적인 의미가 없이 형식적인 의미만을 가지고 있으며, 지극히 추상적이고 형식적이기 때문에 항상 그것을 보충하고 한정시켜 줄 수식어를 필요로 하는 명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러나 많은 문법학자들이 내린 형식명사의 정의는 너무 다양하고 정의내린 내용 또한 문법적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こと」와「もの」와「の」에 관한 내용만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다. 그리고 형식명사를 설명하기 위한 용례 또한 오래 전 자료가 많고, 내용 또한 현재 일본어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문법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용례를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된다.

앞에서 언급한 선행연구에서 판단된 이러한 문제점들을 고려하여 본고에서는 형식명사「こと」「もの」「の」에 대한 구체적인 의미와 용법을 파악하고 이 의미와 용법이 현재 일본어에서 사용된 용례를 제시하여 그 의미와 용법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제 2 절 형식명사의 특성

형식적인 의미만을 가지고 항상 수식어구(절)를 동반하여 사용되는 형식명사의 특성에 대하여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하여 구체적 용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한다.

특히, 본고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형식명사「こと」「もの」「の」의 3가지 표현으로 그 특성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

10) 奥津敬一郎,『生成日本語文法』(大修館書店, 1976), p.358.

CHOSUN UNIVERSITY 1946

(1) 教えることもたくさんありそうね。(ハウル)

(가르쳐줄 것도 많을 것 같네)

(2) あなたのポケットの中のものは何？(ハウル)

(당신 주머니 속에 있는 것은 뭐야?)

(3) 来いって言ったのは王様じゃない！(ハウル)

(오라고 말한 건 왕이 아니라구)

용례 (1)~(3)은 각각 형식명사를 수식하는 앞의 수식어구가 빠지게 되면 형식명사의 의미 자체가 없어지거나 어색해진다. 이것은 형식명사가 가진 가장 큰 특성으로서 형식명사라는 이름이 붙여진 커다란 이유이기도 하다.

각각의 문장에서 형식명사를 수식하는 말들을 제외하면, 다음과 같은 용례 (1')~(3')과 같은 문장이 된다.

(1') こともたくさんありそうね。(ハウル)

(2') ものは何？(ハウル)

(3') のは王様じゃない！(ハウル)

위의 용례 가운데에서 형식명사가 아닌 실질명사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표현이 두 가지 있다. 그것은 「こと」와「もの」로써, 이 둘은 실질적 의미를 가진 명사로서의 기능과 형식적 의미만을 가지는 명사로서의 기능 모두를 가지게 된다.

그리고 실질명사로서 가진 의미가 형식명사로서 쓰인 경우에도 일부 남아있다고 할 수가 있다. 용례(1)의「こと」는 '사항'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고, 용례(2)의「もの」는 '물건'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것들은 실질명사로서도 「こと」와「もの」가 가지고 있는 의미들이다.

그러나 실질적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은 표현인「の」역시 구체적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 용례(3)의「の」는 뒤에 나오는 술어부에 따라 '사람'을 나타내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것은 「こと」「もの」「の」

의 의미와 용법을 다루는 부분에서 자세히 언급하도록 하겠다.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형식명사는 일반명사와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형식체언」이라고 부르는 것이 타당하리라는 견해도 있다.[11] 그러나 형식명사라는 용어로 일반화 되어 문법적 용어로 인정되고 있다. 이런 형식명사의 특성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형식명사 그 자체만으로는 독립적으로 쓰일 수 없다.

둘째, 형식명사 앞에 구체적 의미를 나타내 줄 수 있는 연체수식어구(절)이 와야 문장이 성립한다.

셋째, 실질명사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형식명사의 경우는 실질명사로서의 의미가 형식명사에 남아있다고 볼 수 있으며, 실질명사를 가지지 않는 형식명사 중에서도 뒤에 나오는 술어부에 따라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있다.

11) 国語学会編,『国語学大辞典』(東京堂出版, 1980), p.262.

CHOSUN UNIVERSITY 1946

제 3 장 형식명사「こと」「もの」「の」의 의미 및 용법

모든 명사는 제 각각 추상의 여러 단계를 차지하고 있지만 형식명사는 그 종류의 최상위를 차지하는 추상도가 지극히 높은 명사이다. 추상도가 높은 것은 형식명사가 문맥에 많이 의존한다는 의미를 뜻한다. 이러한 형식명사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こと」「もの」「の」가 있다.

「こと」는 추상적 개념으로서 사고에 의해 파악되는 대상으로 발화, 지식의 내용, 사건, 현상, 생기소멸, 변화, 작용, 행위, 기능, 결과를 포함하고 있다. 「もの」는 감각 또는 그것에 준하는 심리작용에 의해 파악되는 구체적, 추상적 존재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 「の」는 가장 추상도가 높은 것으로 「こと」「もの」보다 상위어가 되는 말이며, 「こと」의 범주와「もの」의 범주 모두를 나타낸다. 이러한 형식명사「こと」「もの」「の」의 의미 및 용법에 대한 연구는 많은 방법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연구를 참고로 삼아 먼저 실질명사로서의 의미 및 용법 과 형식명사로서의 의미 및 용법으로 나누어 고찰한 후에 형식명사로서의 의미 및 용법을 다시 세분화하여 실질명사를 대용하는 용법과 선행하는 수식어구(절)를 명사화하는 용법으로 나누어 고찰하고자 한다.

제 1 절 실질명사로서의 의미 및 용법

실질명사로서의 의미와 용법을 가지는 것으로는 「こと」와「もの」가 있다. 각각 실질명사로 쓰일 경우 「事」와「物」 로 쓴다. 실질명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こと」와「もの」자신이 실질적 의미를 가지고 문장에서 표현되기 때문에 연체수식어구(절)의 도움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자립이 가능하다.

여기에서는 「こと」와「もの」가 실질명사로서 가지는 의미와 용법을 각각 나누어 고찰하고자 한다.

CHOSUN UNIVERSITY 1946

1. 「こと」

실질명사로서의「事」는 인간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나 사태를 나타내는 용법이 있다. 어떤 일이 발생하여 존재하는 현상으로써 막연하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말로써는 실질적 개념을 안에 내포하고 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이러한「事」는 구체적인 물품이나 물질을 나타나내는 실질적 의미를 가진 「物」와 대응한다. 또한「事」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나타나고, 변화하고, 종료하는 현상이나 사태를 나타낸다.

다음의 용례는 실질명사로서의「事」를 나타내는 표현이다.

(4) 事の真相を調べる。(学研474)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다)
<사건, 사태>

(5) 事は重大だ。(日韓826)
(일은 중대하다)
<일>

(6) 事を分けて説明する。(日韓827)
(사정을 조리 있게 설명하다)
<사정>

용례(4)~(6)은「こと」가 실질명사로서의「事」로 쓰인 경우이다. 각각의 용례에서 용례(4)는 「사건이나 사태」, 용례(5)는 「사정」, 용례(6)은 「일」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실질명사로서의 의미와 용법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こと」는 형식명사로서 더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으며, 사전이나 문법서적에서도 실질명사와 형식명사로 구분하여 표기되어있지 않다. 그리고 실질명사로서 쓰이는 경우는 관용적 표현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았는데 용례(9)번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CHOSUN UNIVERSITY 1946

「事とする」는 “오로지 하나에 몰두하여 그것만 한다”라는 의미로 쓰인다.

2. 「もの」

실질명사로서의「物」는 감각기관에 의해서 파악되어지고 고정되어진 객관적 존재를 나타낸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고, 나타나고, 변화하고, 종료하는 현상이나 사태를 나타내는「事」와 대응하며 「物」는 생성되어 소멸되는 경우도 있으나 본래는 변화나 변동이 없는 어떤 물체나 물품, 물질 등을 나타내는 실질적 의미를 지닌다.

(7) のだめの一言に家族は物を投げつける。(のだめ)
(노다메의 한마디에 가족은 물건을 내던졌다)
<물건>

(8) まだ物が言えない。(基礎433)
(아직 말할 수 없다)
<말>

(9) 物には順序がある。(基礎433)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다)
<일>

위의 용례(7)~(9)는「もの」가 실질명사의 의미로써「物」로 쓰여진 예이다. 그리고 용례(7)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실질명사로서의「物」가 가진 본래적인 의미로서 어떤 물질이나 물체 등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용례(8)~(9)의 경우는 물질이나 물체 등이 아닌 「말」을 나타내고 「일」을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이 경우를 森田良行는『「もの」도 「物を言う」처럼 「말」을 나타내는 경우, 「物を思う」와 같이 사고내용을 막연하게 나타내는 경우, 그리고 「物には順序がある」와 같이 「일, 사건」을 나타내는 경우

CHOSUN UNIVERSITY 1946

가 있는데 본래는 「物事のけじめをつける」「物事にとんじゃくしない」와 같이 「物」「事」가 나란히 연결된 별개의 개념을 나타내는 것이었다.』[12] 라고 설명하고 있다.

제 2 절 형식명사로서의 의미 및 용법

「こと」「もの」「の」는 실질적 의미를 갖지 못하고 항상 연체수식어구(절)의 도움을 받아서 그 의미를 나타내는 형식명사로서의 의미와 용법을 가진다. 제 2 절 형식명사로서의 의미 및 용법 에서는 「こと」와「もの」와「の」의 앞에 실질적 의미와 구체적 의미를 나타내 주는 연체수식어구(절)가 등장한다. 앞에 나온 어구나 절의 수식을 받아서 의미를 부여받는 것이다. 이러한 형식명사로서의 의미와 용법 안에서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 첫 번째 용법은 「실질명사를 대용하는 용법」이며, 두 번째 용법은 「연체수식어구(절)를 받아서 선행문을 명사화시키는 용법」이다. 형식명사로서의 두 가지 용법에 대한 내용을 고찰하고자 한다.

1. 실질명사의 대용

「こと」와「もの」는 이미 앞에서 언급했던 대로 실질명사로서의 용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에 나온 구체적 수식어구를 받아서 실질명사를 대용하는 기능을 가진다.

1) 「こと」

「こと」는 주로 인간이 사고하는 대상 중에 「物」처럼 확실한 존재가 아닌 추상적인 사항을 나타낼 때 사용하며 일본어로는 ①말로 표현 가능한 내용, 의미, 이

12)森田良行,『基礎日本語』(角川書房, 1980), p.433.

CHOSUN UNIVERSITY 1946

유. ②세상에 나타나는 사상, 현상, 사건. ③어떤 대상에 관련된 내용, 사항. ④사태, 사정. ⑤행위, 행동 등의 의미를 나타낸다.

각 항목에 해당되는 용례를 일본중학교 교과서선 책 두 권에서 발췌하여 정리해 보았다. 책에서 나오지 않은 항목은 사전을 참고하여 용례를 조사하였다.

<1>말로 표현 가능한 내용, 의미, 이유

(10) 死んでお詫び、などと気のいいことは言っておられぬ。(中学-下144)

(죽어서 사죄한다느니 하는 속 편한 소리 따위를 하고 있을 수는 없다.)

(11) 口では、どんなきよらかなことでも言える。(中学-下84)

(입으로는 어떤 깨끗한 말이라도 할 수 있다.)

(12) まだ子供の俺にも、先生はいろんなことを教えてくれた。(のだめ)

(아직 어린 나에게도 선생님은 많은 것을 가르쳐주셨다.)

<2>세상에 나타나는 사상, 현상, 사건

(13) そんなことがあったとは、すこしも知りませんでした。(用例500)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는 조금도 알지 못했습니다.)

(14) それはことだ。(学研474)

(그것은 큰 사건이다.)

<3>어떤 대상에 관련된 내용, 사항

(15) もう三十年近い昔のことである。(中学-上30)

(벌써 30년 가까운 옛날 일이다.)

(16) ほんとうにもう一所懸命、子供はカリメラのことを考えながらうちのほうへ急いでいました。(中学-上136)

(정말이지 더 열심히 아이는 설탕과자를 생각하면서 집 쪽으로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17) そいつは象のことだから、たぶんぶらっと森を出て、ただなにとなく来たのだろう。(中学-下

CHOSUN UNIVERSITY 1946

14)

(그건 코끼리이니까 아마 훌쩍 숲을 나와서 그냥 무심코 온 걸 거야.)

<4>사태, 사정

(18) こんなことはわたしの友達は何も知ってはいない。(中学-上44)

(이런 건 내 친구들은 아무도 모른다.)

(19) こんなことで四、五日つぶれた。(中学-上58)

(이런 일로 4, 5일 소비됐다.)

<5>행위, 행동

(20) 日本人は先生に対して、ずいぶんひどいことをしましたね。(中学-上106)

(일본인은 선생님에게 너무 심한 짓을 했죠.)

(21) でも、わたしたちは、ぶたれてあたりまめの、ひどいことをしでかしたんです。(中学-上114)

(하지만, 우리들은 맞아도 당연한 심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위의 용례에서와 같이 실질명사를 대용하는 「こと」는 ①말로 표현 가능한 내용, 의미, 이유. ②세상에 나타나는 사상, 현상, 사건, 특히 문제될 만한 사건. ③어떤 대상에 관련된 내용, 사항. ④사태, 사정. ⑤행위, 행동 등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으며, 「こと」가 실질명사를 대용하고 있는 만큼 「こと」가 실질명사로서 가지는 의미의 잔재가 남아있다고 말할 수 있다. 선행하는 어구의 수식을 받아서 사용되어진다.

「品詞別 日本文法講座」에 의하면 "「こと」「もの」「ところ」「とき」가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 경우에는 한자로, 형식적 의미를 가진 경우에는 한자로 쓰지 않는 편이 좋다"[13] 라고 설명하고 있다.

위와 같이 용례(10)~(21)은 실질명사를 대용하는 용법으로 쓰이고 있으며 형식적인 의미의 「こと」는 그 자체로는 막연하지만 앞에 오는 연체수식어에 의해 구체

13) 鈴木一彦, 林 巨樹,『品詞別 日本文法講座10』(明治書院, 1983), p.89.

CHOSUN UNIVERSITY 1946

적인 내용 등을 나타낸다.

2) 「もの」

「もの」는 구체적이며 감각적으로 포착될 수 있는 대상이나 물건을 나타낼 때 사용하며, 이것은 ①사물, 물품. ②말(ことば), 글이나 문장의 내용. ③사리, 도리. ④소유물. ⑤인물. ⑥요괴, 혼, 귀신 등으로 나타난다. 본래 실질명사로 쓰일 경우 「物」를 쓰지만 형식명사로 쓰일 때는 한자를 쓰지 않는 편이 좋다.

<1>사물, 물품

(22) あなたのポケットの中のものは何？(ハウル)

(당신 주머니 속에 있는 거 뭐야?)

(23) 部屋に置いてあるものを見て回るつくし。(男子)

(방에 놓여져 있는 물건을 보고 둘러보는 쯔쿠시)

<2>말(ことば), 글이나 문장의 내용

(24) 呆れてものが言えない。

(어처구니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온다)

(25) 人間の心理というものはまことに複雑だ。(日韓2430)

(인간의 심리란 것은 참으로 복잡하다)

<3>사리, 도리

(26) ものを知らないにもほどがある。

(사리를 몰라도 정도가 있어야지)

<4>소유물

(27) その土は学校のものになった。(用例1481)

(그 땅은 학교의 것이 되었다.)

CHOSUN UNIVERSITY 1946

<5>인물

(28) 男なんか仕方のないものだけどね。(ハウル)

(남자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일 뿐이지만.)

(29) 牧野さんは、弱いものを助ける、弁護士とか向いていると 思います！ (男子)

(마키노는 약자를 돕는 변호사 같은 것이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6>요괴, 혼, 귀신

(30) 霊から生まれたものは霊である。(ヨハネ3-6)

(영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다.)

위의 용례와 같이 실질명사를 대용하는「もの」는 ①사물, 물품. ②말(ことば), 글이나 문장의 내용. ③사리, 도리. ④소유물. ⑤인물. ⑥요괴, 혼, 귀신 등을 나타내고 있으며, 실질명사를 대용하고 있기 때문에 「もの」 도 「こと」와 마찬가지로 실질명사로서 가지는 의미의 잔재가 남아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심리적으로 파악된 추상적인 존재를 대용하여「もの」로 나타내고 있는 (25)의 용례이다. 이 경우 추상적인 존재로서의 의미를 갖는「こと」를 써야 하는 것이 아닌지 혼동이 될 수 있다. 그러나「もの」가 가진 추상성은 자신이 직접 생각하고 사고해서 나온 어떤 결과라기보다는 감각적으로 막연하게 일컫는 말을 표현한 것이며 사고의 과정이 결여되어있음을 알 수가 있다.

그 반면에 「こと」는 생각하고 판단하는 결과로서 나타난다고 할 수 있으며 사고하고 생각하는 과정이 자연스럽게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25)의 용례는 사고의 과정에 의해 내려진 결단이 라기 보다는 일반적인 심리를 막연하게 나타낸 것으로 「もの」를 사용하였으나, 이 경우 「こと」로 바꾸어 쓸 수 없다.

2. 선행하는 연체수식어구(절)의 체언화(명사화)

CHOSUN UNIVERSITY 1946

1)「こと」

「こと」가 어휘적 의미는 거의 없이 선행하는 문이나 구를 체언화 하는 기능만을 완수하는 용법이 있다. 즉, 선행하는 수식어의 용언적 상태를 「~ということ」「~という事實」이라고 하는 체언적인 개념으로 바꾸는「こと」라고 할 수 있으며, 선행하는 말을 체언화 하여 각종의 격을 나타내기도 한다.

구체적인 용례를 살펴보도록 하자.

(31) 今日から私は、このSオケを脱退し、Aオケに専念することをここに誓います。(のだめ)

(오늘부터 나는 이 S오케스트라를 탈퇴하고, A오케스트라에 전념할 것을 여기에서 선서합니다.)

(32) さっき俺があんた助けたことで、英徳の人間は、俺とアンタが下手すりゃ出来てるって思ってるはずだよな。(男子)

(조금 전 내가 널 도운 것으로, 에이토쿠의 인간은, 나와 니가 어쩌면 사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 거야..)

(33) こうしたパニックを防ぐには、一人ひとりが速報の意味を理解し、どう行動すべきか、あらかじめ共通の知識を持っておくことが大切だ。(社9-02)

(이런 혼돈을 막기 위해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속보의 내용을 이해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사전에 공통의 지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용례(31)~(33)에서 「こと」의 연체수식어구(절)을 명사화 하는 용법을 제대로 살펴보기 위해서「こと」앞에 선행하는 연체수식어구(절)를 분리해서 생각해 보면 「Aオケに専念する(A오케스트라에 전념하다)」「俺があんた助けた(내가 너를 구했다)」「あらかじめ共通の知識を持っておく(사전에 공통지식을 가지다)」로 문장의 의미가 동작이나 상태를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그러나 이 표현들이 뒤에 후접하는「こと」를 만나면 각각 「Aオケに専念すること(A오케스트라에 전념할 것)」「俺があんた助けたこと(내가 너를 구한 것)」「あ

CHOSUN UNIVERSITY 1946

らかじめ共通の知識を持っておくこと(사전에 공통의 지식을 가지는 것)」이 되어 문장의 의미가 「명사 상당 표현」으로 바뀌게 됨을 알 수가 있다.

寺村秀夫는 선행하는 문과 구를 받아서 그 내용을 체언의 자격으로 바꾸는 역할을 하는「こと」를 "문을 체언화 하기 위해 사용되어지는 기능어"[14] 라고 하였다.

또한 「こと」는 「ある, なる, する, できる」등과 결합하여 「ことがある, ことになる、ことにする、ことができる」와 같은 형태를 취하여 관용적으로 쓰인다. 참고로「もの」와「の」에는 이러한 용법이 없다.

(34) きょうを生きれば、明日いいことがあるかもしれない。(天9-02)

(오늘을 살면 내일은 좋은 일이 있을지도 모른다)

(35) そして、シモンをイエスのところに連れて行った。イエスは彼を見つめて、「あなたはヨハネの子シモンであるが、ケファ――『岩』という意味――と呼ぶことにする」と 言われた。(ヨハネ1-42)

(그가 시몬을 예수님께 데려가자, 예수님께서 시몬을 눈여겨보며 이르셨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앞으로 너는 케파라고 불릴 것이다." '케파'는 '베드로'라고 번역되는 말이다.)

(36) その証しを受け入れる者は、神が真実であることを確認したことになる。(ヨハネ3-33)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느님께서 참되심을 확증한 것이다.)

(37) 日朝を前進させれば、対米関係もいっそう進めることができる。(社9-07)

(북일 관계가 전진하면 대미관계도 한층 더 나아질 수 있다.)

용례(34)과 같은 표현은「ことがある、ことはある、こともある、ことがない、ことはない、こともない」의 형태로 「~하는 일(이, 은, 도) 있다<없다>」라는 일상적으로 흔히 체험하는 사실에 대한 유무를 나타낸다.

용례(35)와 (36)의 표현인 「ことにする、ことになる」는「~하기로 하다, ~하게 되다」라는 자신의 의지에 의해 결정된 일, 결정되어 있는 예정을 나타낸다.

14) 寺村秀夫,『日本語文法(下)』(国立国語研究所, 1982), p.134.

CHOSUN UNIVERSITY 1946

용례(37)은 「~こと(が・は・も)できる(できない)」「~할 수(가・는・도) 있다(없다)」의 표현으로 가능을 나타낸다.

위에 나타난 용례들과 같이 용언을 명사화하여 한정된 술어와 함께 관용적인 표현을 나타낸다. 이상에서 살펴 본 「こと」에 관련된 관용구는 어떤 사항에 대해 현재 어떤 상태인지를 나타낼 뿐, 사건이 발생하는 시점을 특정 짓지 않는다.[15]

2)「の」

앞에서 「こと」가 선행하는 문이나 구를 체언화 하는 용법을 가진 것처럼 「の」또한 「こと」처럼 형식적인 의미로 쓰여 선행하는 문이나 구, 연체수식어구(절)를 체언화 하는 용법을 가지고 있다. 즉, 선행절의 내용을 명사화 시킨다.

아래의 용례를 살펴보도록 하자.

(38) 人間は羊よりもはるかに大切なものだ。だから、安息日に善いことをするのは許されている。(マタイ 12-12)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니 안식일에 좋은 일은 해도 된다)

(39) つくしちゃんに幸せになってもらうのが、私の本当の願いだから。(男子)
(쯔쿠시가 행복해지는 것이 나의 진짜 소원이니까)

(40) 二日酔いのまま大学に向かった千秋を待っていたのはのだめ。(のだめ)
(술이 깨지 않은 채로 대학으로 향한 치아키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노다메였다)

용례(38)~(40)에서「の」앞에서「の」를 수식하는 연체수식어구(절)나 선행절을 따로 빼내어 그 의미를 보면 「安息日に善いことをする(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다)」「つくしちゃんに幸せになってもらう(쯔쿠시가 행복해지다)」「二日酔いのまま大学に向かった千秋を待っていた(술이 깨지 않은 채로 대학교로 향한 치아키를 기다리고 있다)」등

15) 大島資生,『複文構造にあらわれる「こと」と「の」について(第 6 号)』(東京大学留学生センター紀要, 1982), p.53.

으로 문장의 의미가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임을 알 수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 뒤에「の」가 후접되면 각각「安息日に善いことをするの(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는 것)」「つくしちゃんに幸せになってもらうの(쯔쿠시가 행복해지는 것)」「二日酔いのまま大学に向かった千秋を待っていたの(술이 깨지 않은 채로 대학교로 향하는 치아키를 기다린 것)」이 되어「こと」와 마찬가지로 「명사 상당 표현」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그렇지만「の」는 형식명사로서 어떤 실질적 의미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앞에 선행하는 연체수식어구(절)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지는 못하고 단지 체언화 시키는 도구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CHOSUN UNIVERSITY 1946

제 4 장 형식명사「こと」「もの」「の」의 용법 비교 연구

형식명사「こと」「もの」「の」는 의미 및 용법이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구분해서 사용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 본고에서는 형식명사「こと」「もの」「の」의 용법을 구분하여 사용 할 수 있도록 각각의 표현들을 비교하여 분석해 보고자 한다.

제 1 절 「こと」와「もの」의 비교

많은 사전에서는「こと」는 사고의 대상 등의 추상적인 일을 표현하고「もの」는 형체를 가지고 감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대상을 표현한다고 한다.

이러한 「こと」와「もの」가 어떻게 사용구분이 가능한지 그리고 어떠한 문법적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우선「教師と学習者のための日本語文型辞典」에 서술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자.

“「もの」는 물체, 또는 시간의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사건)과는 관계없이 존재하는 무언가를 특정 짓지 않고 일반적으로 다룰 때 사용한다.
「こと」와「もの」의 용법은 구별하기 어려운 점이 많으나, 시간의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나타내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기본적인 차이가 된다. 동작과 사건에 관계있는 경우는「もの」가 아니라 「こと」를 쓴다.”[16]

다시 말해 「시간의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나타내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중요한 차이로 지적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森田良行는「こと」「もの」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こと」는 원래 말로부터 비롯된 단어이다. 언어로써 사고하고 언어로 표출되어

16) グループジャマシイ編著, 『教師と学習者のための日本語文型辞典』(くろしお出版, 1998), p.591.

CHOSUN UNIVERSITY 1946

지는 의식의 대상이다. 언어는 인간을 중심으로 한 생활행동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こと」도 당연히, 인간을 중심으로 한 "인간 대 인간" "인간 대 사물"의 관계안에서 생기는 다양한 일이나 사건을 의미했다. 감각기관에 의해서 파악되어지는 정도의 고정적이고 객관적인 존재를 나타내는 것은「もの」이다."[17]

이러한 森田良行의 설명은 자신의 책에 있는 예문을 통해서 잘 나타내고 있다.

(41) 自分のことは自分で始末すべきだ。(基礎433)
(자신의 일은 자신이 매듭을 지어야만 한다)

(42) 自分のものは自分でかんりすべきだ。(基礎433)
(자신의 것은 자신이 관리해야만 한다)

(43) 悪いことをしてはいけない。(基礎433)
(나쁜 짓을 해서는 안된다)

(44) 悪いものを食べてはいけない。(基礎433)
(나쁜 음식을 먹어서는 안된다)

위의 용례(41)과(42), 용례(43)과(44) 는 아주 유사한 내용이지만「こと」가 쓰이는지「もの」가 쓰이는지에 따라서 뒤에 나오는 술어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自分のこと」와「悪いこと」에서의「こと」는 실질명사를 대용하는 용법으로 각각 「일」과「행동」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여기에서의「こと」는 이미 앞에서 언급했듯이 동작이나 행위를 나타내는 추상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自分のもの」와「悪いもの」에서의「もの」는「こと」와 같이 실질명사를 대용하는 용법으로 쓰였지만 구체적이며 고정적이고 객관적인 의미로 사용되어 물건이나 음식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이 뚜렷한 의미적 차이를 나타내는「こと」와「もの」는 바꾸어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바꾸어 사용할 경우 용례(41')~(44') 처럼 「자신의 것(?)은 자신이 매듭을 지어야만 한다」「자신의 일(?)은 자신이 관

17) 森田良行,『基礎日本語』(角川書房, 1980), p.148.

CHOSUN UNIVERSITY 1946

리해야만 한다」「나쁜 것(?)을 해서는 안된다」「나쁜 짓(?)을 먹어서는 안된다」로 해석되어 문법적으로 맞지 않는 문장이 된다.

(41') (×)自分のものは自分で始末すべきだ。(基礎433)
(42') (×)自分のことは自分でかんりすべきだ。(基礎433)
(43') (×)悪いものをしてはいけない。(基礎433)
(44') (×)悪いことを食べてはいけない。(基礎433)

또한 위의 용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こと」와「もの」가 형식명사로써 쓰일 때의 차이구분은 「こと」와「もの」가 같은 용법을 지닌 것에서 나타나는데,「こと」와「もの」가 공통적으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은「실질명사를 대용하는 용법」이다. 이 부분은「こと」와「もの」만이 가진 기능이며「の」는 이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다. (참고로 「の」가「실질명사를 대용하는 용법」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해서「の」가 꼭 어떤 의미를 갖지 않는 것은 아니다. 단지, 실질적인 의미의 용법이 없을 뿐이다.)

그래서「こと」와「もの」의 차이를 비교 연구 하는데 있어서 실질명사로서의 차이와 더불어 형식명사로서 그 실질명사를 대용하는 용법을 비교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여기서「こと」와「もの」의 사용구분을 분석하는 데에 실질 명사적 부분을 언급할 수밖에 없음을 느끼는 바, 실질명사로서「こと」와「もの」그리고 그 실질명사를 대용하는 형식명사로서의 「こと」와「もの」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이미 앞서서 이 내용을 언급하였지만 실제적으로 이 두 표현의 사용법을 비교하는데 있어 중요한 부분이라고 사료되므로 다시 한 번 다루고자 한다.

森田良行는 「こと」와「もの」를 실질적 의미를 가진「こと」와「もの」, 형식적 의미밖에 갖지 않는 「こと」와「もの」로 구분하고 있다.

형식적 의미를 갖는 형식명사로서의 용법이란「こと」와「もの」가 앞에 오는 연체수식어를 받아서 구체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것, 다시 말해 앞에 오는 연체수식

CHOSUN UNIVERSITY 1946

어를 받아서 실질명사를 대신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こと」와「もの」자체는 의미의 실체가 막연하지만 앞에 오는 연체수식어에 따라 그 의미가 구체화 되는 것이다.

(45) 何かすぐ食べられる物があれば、それでいい。(文型591)
(무언가 바로 먹을 수 있는 것이 있으면 그걸로 좋다)

(46) 不思議なものを見たような気がする。(文型591)
(이상한 것을 본 듯한 느낌이 든다)

용례(45)가 실질명사로서의「物」로서 「음식」을 나타내고 있으며, 용례(46)은 형식명사로서 실질명사를 대용하는 용법으로 쓰여 「물체, 물건」을 나타내고 있다.

(47) 事ここに到る。(基礎433)
(일이 이 지경에 이르다)

(48) 自分のことは自分でしなさい。(日韓826)
(자기 일은 자기가 하세요)

용례(47)은 실질명사로서의「事」로서 「사건, 일」을 나타내고 있으며 용례(48)은 형식명사로서 실질명사를 대용하는 용법으로 쓰이고 있으며 이 경우는 「(어떤 대상을 중심으로 한)그에 관한 일체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こと」는 추상적이라고 생각하고, 「もの」는 물체나 물질을 떠올리기가 쉬워서 둘을 구체적인 것 과 추상적인 것의 대립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인어 나 괴수 같은 허구적 존재도「こと」보다는「もの」를 사용하고 人生과 같은 추상적 단어도「もの」로 표현하고 있다. 이런 것으로 보아「こと」와「もの」의 구별이 형태와 구체성의 유무로 판단할 수만은 없는 듯하다.

이러한 「こと」와「もの」에 대하여 근대적 세계관의 근본적 전환을 주장했던

CHOSUN UNIVERSITY 1946

廣松涉은「××ということは～だ」「○○といるものは～だ」의 「××」와「○○」에 들어갈 표현을 분류하는 것에 따라「こと」와「もの」에 관한 암묵적인 이해관계를 씻을 수 있다고 하였다.[18] 그것에 따르면 문장태가「××」즉「こと」인 것에 비해 명사류는「○○」즉「もの」가 된다.

예를 들어 「雪が降る」「雪が白い」는「こと」를 쓰지만 「降る雪」와 「雪の白さ」는 「もの」라는 것이다. 즉, 동사는 문장태의 생략 표현이기 때문에 동사가 들어간 표현을 받을 때는「こと」를 쓴다는 것이다.

寺村秀夫는 수식어구를 수반하는「こと」「もの」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こと」의 대상은 명제로 표현되는 내용과 동사・형용사로 표현되는 동작, 작용, 변화, 상태, 속성 등 일반적으로 개념으로써 표현되는 것이다.「もの」가 개별적인 것에 비하여「こと」는 일반적이고, 「もの」가 감각(오관) 이나 그에 준하는 심리작용에 의해서 파악되어지는 대상인데 반해, 「こと」는 사고에 의해서 파악 되어지는 대상, 발화, 지식의 내용이다."[19]

이와 같은 寺村秀夫의 설명은 다음의 용례들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49) 何かすぐ食べられるものがあれば、それでいい。(文型591)
(무언가 바로 먹을 수 있는 것이 있으면 그걸로 좋다)

(50) 自分の五感で感じたものを、どうやって表現したら良いのでしょうか。(知恵袋)
(자신의 오감으로 느낀 것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 것인가)

용례(49)의「もの」는「음식물」을 나타내고, 용례(50)의「もの」는「감정」혹은「기분」을 나타내고 있어서 이것은「감각 혹은 심리작용에 의해 파악되는 대상인

18) 広松涉, 『もの、こと、ことば』(勁草書房, 1997).
19) 寺村秀夫, 『日本語のシンタクスと意味Ⅱ』(くろしお出版, 1984), p.293.

CHOSUN UNIVERSITY 1946

명사」라고 할 수 있다.

(51) この小説を通じて、あなたがいちばん感じたことはなんだろう。

(이 소설을 통해서 당신이 느낀 점은 무엇인가)

(52)「ああ、閏土の心は神秘の宝庫で、わたしの遊び仲間とは違いだ。」

「こんなことはわたしの友達は何も知ってはいない。」(中学-上44)

(아아, 룬토의 마음은 신비스런 보물 창고로 내 놀이 친구들과는 아주 달랐다. 이런 것은 내 친구들은 아무것도 모른다)

이에 비해 용례(51)의「こと」는「소설을 통해 느낀 내용」을 나타내고 있고, 용례(52)의「こと」는 앞의 문장인「룬토의 마음은 신비스런 보물 창고로 내 놀이 친구들과는 아주 달랐다」라는 앞 문장의 내용을 나타내고 있어서「こと」의 대상은「명제로 표현되는 문」임을 알 수 있다.

제 2 절 「こと」와「の」의 비교

일본어 형식명사 중에서「こと」와「の」는 앞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선행하는 연체수식어구(절)을 명사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용법 가운데에는 주문의 술어 성질에 따른 사용법이 있다. 구체적인 용례를 살펴보도록 한다.

(53) お手をお貸しする {こと/？の} は、禁じられております。(ハウル)

(도와주는 것은 금지되어있습니다)

(54) 千秋を探すのだめは、彼がベンチで眠っている {?こと/の} を見つける。(のだめ)

(치아키를 찾은 노다메는 그가 벤치에서 잠자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

앞의 용례(53)는「의지」를 나타내는 동사「禁じる」가 쓰여서「こと」만 사용가능하고 용례(54)는「지각」을 나타내는 동사「見つける」가 쓰여서「の」사용가능하

CHOSUN UNIVERSITY 1946

다. 또한, 용례(55)과 같이「인식」을 나타내는 동사「知る」가 쓰여서「こと」와「の」둘 다 사용가능하다.

(55) 千秋が飛行機恐怖症である｛こと/の｝を知らないふたりは、千秋が海外に行くのを楽しみにしているようだった。(のだめ)
(치아키가 비행기 공포증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두 사람은 치아키가 해외로 가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 듯 했다)

앞의 용례에서처럼「こと」와「の」는 문장에서 주절의 술어가 어떤 특성을 가지는가에 따라「こと」만 사용가능한 경우,「の」만 사용가능한 경우,「こと」와「の」둘 다 사용가능한 경우로 나누어진다.

이 3가지 경우에 해당되는 각각의 술어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는다.

"「こと」는 현장에서 떨어져서 하나의 정리된 내용으로써 파악하는 것이고「の」는 사태를 현장 있는 그대로, 동작 그대로 파악하는 것이다.「こと」만 취할 수 있는 술어는 사태를 하나로 정리된 사건으로 밖에 취할 수 없고 일반적으로 그 현장으로부터 떨어진 곳에서 성립되는 것이며「の」만 취할 수 있는 술어는 사태의 현장에 동시에 있지 않으면 실현되지 않는 것(동시성) 이어야한다. 더불어「こと」와「の」를 모두 취할 수 있는 술어는 사태를 전체적으로 정리한 하나의 사건으로도 현장 안에 속하는 활동으로도 이해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20]

佐治圭三가 말한 술어의 특성을 구체적인 용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한다.

(56) そこにやってきたシュトレーゼマンの秘書エリーゼは、シュトレーゼマンがドイツに帰国したことを千秋に伝える。(のだめ)

20) 佐治圭三,『日本語の文法の研究』(ひつじ書房, 1991), p.194.

CHOSUN UNIVERSITY 1946

(독일에서 온 슈트레제만의 비서 엘리제는 슈트레제만이 독일에 귀국한 것을 치아키에게 전한다)

(57) 文句を言う人たちの中で，雨宮だけは，憶測だけで人を判断しちゃいけませんと，立派なことを言いました。(hero)

(불만을 터트리는 사람들 중에서, 아마미야만은 억측만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된다고 훌륭한 말을 했습니다)

용례(56)에서「こと」앞에 선행된 문장과 「こと」뒤에 존재하는 주절의 술어와의 관계를 잘 살펴보면 「シュトレーゼマンがドイツに歸國した」라는 내용이 다른 곳에서 이미 발생한 후에 치아키에게 전해진 것을 알 수가 있고, 용례(57)에서도 「憶測だけで人を判斷しちゃいけません」라는 말이 이미 다른 곳에서 아마미야가 했던 이야기를 인용하여 말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즉, 이 두 용례의 내용은 다른 장면에서 발생된 내용을 전달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주절의 술어로 이와 같이 「전달」을 나타내는 동사「言う, しゃべる, 伝える, 述べる, 書く, 知らせる, 話す」등이 사용되면「こと」앞에 선행되는 문장은 어떠한 일이 다른 장소에서 발생을 한 후에 전달을 하게 된다. 이처럼 선행되는 문장의 내용과 주절 동사의 내용이 서로 다른 장면에서 성립 될 경우는 앞서 佐治圭三가 말한 술어의 특성에 따라「こと」만 사용가능하게 된다. 또 다른 용례를 살펴보도록 한다.

(58) 婦人はこの手紙を夫に見せないことに決めた。

(부인은 이 편지를 남편에게 보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59) イエスは、いろいろな病気にかかっている大勢の人たちをいやし、また、多くの悪霊を追い出して、悪霊にものを言うことをお許しにならなかった。(マルコ1-34)

(예수님께서는 갖가지 질병을 앓는 많은 사람을 고쳐 주시고 많은 마귀를 쫓아내셨다. 그러면서 마귀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용례(58)에서「こと」앞에 선행된 문장과 「こと」뒤에 존재하는 주절의 술어와

CHOSUN UNIVERSITY 1946

의 관계를 잘 살펴보면 「婦人はこの手紙を夫に見せない」라는 내용은 부인이 마음으로 결정한 후에 일어나는 일이 되고, 용례(59)에서도「悪霊にものを言う」라는 내용은 예수가 악령에게 말을 하는 것을 허락한 후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되므로 이 두 용례의 내용은 다른 장면에서 발생된 내용을 전달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특히, 앞에서 전달을 나타내는 동사와는 달리 주절 동사의 동작이 이루어 진 후에 선행문이 이루어 질 수 있음을 나타낸다.

주절의 술어로 이와 같이 「의지」를 나타내는 동사「命じる, 禁じる, 望む, 許す, 約束する, 決める」등이 사용되면「こと」앞에 선행되는 문장은 주절의 술어가 동작을 마친 후에 일이 일어나게 된다. 즉, 선행되는 문장의 내용과 주절 동사의 내용이 서로 다른 장면에서 성립 된다. 이러한 경우 또한 「こと」만 사용가능하게 된다. 또 다른 용례를 살펴보도록 한다.

(60) 美雪が書類をひっくり返したときのことを思い出す賢介。(派遣)

(미유키가 부들부들 떨며 서류를 제출했던 일을 떠올리는 켄스케)

(61) この二人も行って残りの人たちに知らせたが、彼らは二人の言うことも信じなかった。(マルコ 16-13)

(그래서 그들이 돌아가 다른 제자들에게 알렸지만 제자들은 그들의 말도 믿지 않았다.)

용례(60)에서「こと」앞에 선행된 문장과 「こと」뒤에 존재하는 주절의 술어와의 관계를 잘 살펴보면 「書類をひっくり返したとき」라는 내용이 다른 곳에서 이미 발생한 후에 나중에 그 일을 떠올리는 것을 알 수 있고, 용례(61)에서도「二人の言うこと」라는 내용을 이미 다른 사람들에게 알렸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난 후에 제자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즉, 선행문의 내용이 일어난 후에 주절 동사의 동작이 일어난 것으로 서로 다른 장면에서 발생한 내용을 나타내고 있다.

주절의 술어로 이와 같이「사고」를 나타내는 동사「思う, 信じる, 疑う, 理解す

る」등이 사용되면「こと」앞에 선행되는 문장은 어떠한 일이 다른 장소에서 발생을 한 후에 주절 동사의 동작이 성립된다. 이 경우도 앞서 언급한 「전달」과「의지」를 나타내는 술어와 마찬가지로「こと」만 사용가능하게 된다.

이처럼 선행문의 의미내용과 주절의 동사의 의미 내용이 서로 다른 장면에서 성립될 때 「こと」만을 사용하게 된다. 따라서「こと」만 사용되는 문장에서는 선행문에서 경험한 사항에 대해 분석・판단하여 얻은 결론인「대략적인 사실내용」이 기술되는 특성이 있다.[21]

다음의 용례는「の」만 사용가능한 경우이다.

(62) ここからバスがはしっているのが見える。

(여기에서 버스가 달리는 것이 보인다)

(63) 三日の後、イエスが神殿の境内で学者たちの真ん中に座り、話を聞いたり質問したりしておられるのを見つけた。(ルカ2-46)

(사흘 뒤에야 성전에서 그를 찾아냈는데, 그는 율법 교사들 가운데에 앉아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묻기도 하고 있었다)

용례(62)에서 주절의 행위 주체는「ここからバスがはしっている」라는 장면에서 버스가 달리는 것을 보고 있다. 용례(63)에서도 마찬가지로 행위 주체는「神殿の境内で学者たちの真ん中に座り、話を聞いたり質問したりしておられる」라는 장면에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율법교사들 가운데 앉아 말을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는 것을 직접 발견하여 보고 있다. 즉, 선행문의 내용이 이루어지고 동사의 작용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주절의 술어가 「見る,見つける,聞こえる,見つめる」등과 같이「지각」을 나타내는 경우에는「の」만 사용가능하게 되며, 이러한 술어는 행위주체와 선행문이 동일한 장면에 있어야 성립이 된다. 또 다른 용례를 살펴보도록 한다.

21) 佐治圭三,「「の」の本質ー「こと」「もの」との対比からー」,『日本語学』, 10, vol.12(明治書院, 1993), p.9.

CHOSUN UNIVERSITY 1946

(64) 母がアイロンをかけるのを手伝う。

(엄마가 다리미를 다리는 것을 돕다)

(65) Aオケの練習が終わるのを待つ千秋。(のだめ)

(A오케스트라의 연습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치아키)

용례(64)에서 주절의 행위 주체는「アイロンをかける」라는 장면에서 엄마가 다리미질 하는 것을 돕고 있다. 용례(65)에서도 마찬가지로 행위 주체는「Aオケの練習が終わる」라는 장면에서 A오케스트라가의 연습이 끝나는 것을 직접 기다리고 있다. 즉, 선행문의 내용과 행위주체에 의해 일어나는 동사의 작용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주절의 술어가 「待つ, 手伝う, 出會う, 見張る, 待ち受ける」등과 같이「구체적 동작」을 나타내는 경우에는「の」만 사용가능하게 되며, 이러한 술어는 행위주체와 선행문이 동일한 장면에 있어야 성립이 된다.

이처럼 선행문의 내용과 주절의 내용이 같은 장면에서 성립 될 경우 선행문은 경험하고 관찰된 사항 그대로 즉, 「전체적 사실 내용」으로 기술되며, 이러한 경우는「の」만 사용가능하다.

다음의 용례는 「こと」와 「の」둘 다 사용가능한 경우를 나타낸다.

(66) ラビ、わたしどもは、あなたが神のもとから来られた教師であるのを知っています。

(ヨハネ3-2)

(스승님, 저희는 스승님이 하느님에게서 오신 스승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66') ラビ、わたしどもは、あなたが神のもとから来られた教師であることを知っています。

용례(66)은「の」를 사용한 문장이다. 이 경우「わたしども」는「あなたが神のもとから来られた教師である」라는 내용을 인정할 수 있는 직접적인 체험을 하여 선행문의 이미지 전체를 구체적으로 뚜렷하게 알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용례(66)의

CHOSUN UNIVERSITY 1946

선행문 뒤에 위치하는「の」는「わたしども」가 체험한 시각적 이미지 전체를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반면,「わたしども」는 선행문에 대하여 용례(66)과 같이 구체적으로 알 수도 있지만 대략적인 사실로써 알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다. 그러므로 용례(66')와 같이 선행문의 내용을 「대략적인 사실」로 기술하는「こと」를 사용해도 된다.

이처럼 용례(66)은 용례(66')와 같이 바꾸어 쓸 수 있는데 용례(66')는 용례(66)에 비해서 체험한 이미지가 뚜렷하지 않고 대략적으로 알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용례를 살펴보도록 한다.

(67) そこで、弟子たちは言った。「群衆があなたに押し迫っていることがお分かりでしょう。それなのに、『だれがわたしに触れたのか』とおっしゃるのですか。」(マルコ 5-31)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반문하였다. "보시다시피 군중이 스승님을 밀쳐대는데, '누가 나에게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십니까?")

(67') そこで、弟子たちは言った。「群衆があなたに押し迫っているのがお分かりでしょう。それなのに、『だれがわたしに触れたのか』とおっしゃるのですか。」

용례(67)은「こと」를 사용한 문장이다. 이 경우「弟子たち」는「群衆があなたに押し迫っている」라는 사실을 대략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弟子たち」는 선행문에 대하여 용례(67)과 같이 대략적으로 인식할 수도 있지만 구체적인 사실로써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므로 용례(67')와 같이 선행문의 내용을「전체적인 사실」로 기술하는 「の」를 사용해도 된다. 즉, 용례(67')에서「弟子たち」는「群衆があなたに押し迫っている」라는 동작을 직접 체험하여 선행문의 이미지 전체를 구체적으로 뚜렷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용례(67)은 용례(67')와 같이 바꾸어 쓸 수 있는데 용례(67')는 용례(67)에 비해서 체험한 이미지가 뚜렷하다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こと」와 「の」둘 다 사용가능한 경우에「の」를 사용한 문장의 내용은 「전체적인 사실」을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こと」를 사용한 문장

CHOSUN UNIVERSITY 1946

의 내용은 「대략적인 사실」로 기술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제 3 절 「もの」와「の」의 비교

「もの」와「の」는 구체적인 개체를 나타내는 경우 함께 쓰이며, 그 내용이 일반적인지 아니면 선택적・개별적인지에 따라 「もの」와「の」로 구별되어 사용된다고 할 수 있다. 같이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의미의 차이는 확실히 존재한다. 다음의 용례를 살펴보도록 한다.

(68) 大きいのがいい。(홀로81)

(큰 것이 좋다)

(69) ぐつの中に、神様だって。そんなの迷信でしょ、おばあちゃん。

(신발 속에 신이라니, 그런 것은 미신이잖아요, 할머니)

용례(68)의 「の」는「もの」로 바꾸어 쓸 수 있으며 용례(68')는 가능한 문장이다. 용례(68)과 같이「の」를 쓰면 「큰 것, 작은 것, 등 다양하게 사이즈가 있는 중에 작은 것이나 중간 것이 아닌 큰 것 좋다」라고 하는 특별히 개별적인 것을 강조하여 지칭할 때 쓴다고 할 수 있으나, 용례(68')와 같이 「もの」를 사용했을 경우는 「큰 것이 더 좋다」라는 일반적인 상황을 나타내는 것이 된다.
의미영역이 겹쳐진다고는 하지만, 엄밀하게 말해서 「もの」를 쓰는 경우와 「の」를 쓰는 경우는 그 의미하는 바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68') 大きいものがいい。

그런데, 용례(69)는 「もの」와는 바꿔 쓸 수 없는 경우를 나타낸 것이다. 용례(69)를「もの」로 바꿔보면 아래와 같은 문장이 된다.

CHOSUN UNIVERSITY 1946

(69') ぐつの中に、神様だって。そんなの迷信でしょ、おばあちゃん。

즉, 용례(69)는「신발 속에 신이라니, 그런 것」이라는 앞 뒤 문맥이 선택적이고 개별적인 의미로 결정되어 있으므로 용례(69')와 같은 문은 성립이 되지 않고 「の」만을 쓸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는「の」가 가진 고유의 특징으로 「こと」로 바꿀 수 없다.

CHOSUN UNIVERSITY 1946

제 5 장 형식명사「こと」「もの」「の」의 선・후행요소 비교

형식명사「こと」「もの」「の」가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를 제외하고, 연체수식어구(절)을 항상 동반하는 품사이지만 실제 어느 말 앞에 접속하고 어느 말 뒤에 접속하는 지 구분하기 힘들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제5장에서는 형식명사「こと」「もの」「の」에 선・후행하는 요소를 조사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여기서의 선행요소는 형식명사「こと」「もの」「の」의 바로 앞에 오는 말, 그리고 후행요소는 형식명사「こと」「もの」「の」의 바로 뒤에 오는 말로 한정하도록 한다.

제 1 절 선행요소의 비교

형식명사「こと」「もの」「の」의 앞에 접속하는 선행요소로는 형용사, 형용동사, 동사, 연체사「ある、いろいろな、あらゆる、この、その、あの、どの」, 「こんな、そんな、あんな、どんな」그리고 조사「だけ」, 조동사「ない・ぬ、らしい、たい、ようだ、そうだ、た(だ)、である」, 「～という」, 단정조동사의 연체형 표현「な」, 조사「の」등 여러 가지 요소가 있다.

<표1> <「こと」「もの」「の」>와 접속하는 선행요소[22)]

선행요소	접속형태	こと	もの	の
형용사		○	○	○
형용동사	<な>+「こと,もの,の」	○	○	○
동사		○	○	○
「こんな、そんな、あんな、どんな」		○	○	○
연체사「ある」		*	○	○
연체사「いろいろな」		○	○	○
연체사「あらゆる」		○	○	×

22) 김연주. “「こと, もの. の」研究: 先・後行要素와 混用을 中心으로.”, 석사학위논문,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1997.

CHOSUN UNIVERSITY 1946

연체사「この、その、あの、どの」		○	○	×
부조사「だけ」		×	×	○
비유・예시・추측의 조동사「ようだ」	<な>+「こと,もの,の」	○	○	○
양태조동사「そうだ」	<な>+「こと,もの,の」	*	○	○
단정조동사의 문어적 표현「である」		○	○	○
부정조동사「ない・ぬ」		○	○	○
희망조동사「たい」		○	○	○
추정조동사「らしい」		○	○	○
과거・완료 조동사「た(だ)」		○	○	○
조동사「べきだ」	<べき>+「こと,もの」 <べきな>+「の」	○	○	○
「～という」		○	○	○
단정조동사의 연체형 표현「な」	<다른 선행 요소+なの>	×	×	○
조사「の」		○	○	×

(○ : 쓰임, × : 쓰이지 않음 * : 특별한 경우에만 쓰임)

제 2 절 후행요소의 비교

형식명사「こと」「もの」「の」의 뒤에 접속하는 후행요소에는 조동사「だ、だろう、ようだ、である、らしい」, 격조사「が、の、を、に、へ、と、から、より、で、でも、や、として」, 접속조사「だから、と」부조사「は、か、も、だけ、さえ、しか、すら、まで、など、なんか、こそ、ばかり、ぐらい、とか、ほど、やら」, 종조사「よ、ね、さ、かな、かしら、か、かい、だい、かね」, 복수접미어「たち」가정표현「なら」, 「～ではない」, 「～かもしれない」등을 들 수가 있다.

<표2> <「こと」「もの」「の」>와 접속하는 후행요소[23)]

선행요소	こと	もの	の
격조사「が」	○	○	○

23) 김연주. "「こと, もの. の」研究: 先・後行要素와 混用을 中心으로.", 석사학위논문,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1997.

CHOSUN UNIVERSITY 1946

격조사「の」	○	○	×
격조사「を」	○	○	○
격조사「に」	○	○	○
격조사「へ」	○	○	○
격조사「と」	○	○	○
격조사「から」	○	○	○
격조사「より」	○	○	○
격조사「で」	○	○	○
격조사「でも」	○	○	○
격조사「や」	○	○	○
격조사「として」	○	○	*
접속조사「だから」	○	○	○
접속조사「と」	○	○	○
부조사「は」	○	○	○
부조사「か」	○	○	○
부조사「も」	○	○	○
부조사「だけ」	○	○	○
부조사「しか」	○	○	○
부조사「さえ」	○	○	*
부조사「すら」	○	○	*
부조사「まで」	○	○	*
부조사「など」	○	○	○
부조사「なんか」	○	○	○
부조사「こそ」	○	○	○
부조사「ばかり」	○	○	○
부조사「ぐらい」	○	○	○
부조사「とか」	○	○	○
부조사「ほど」	○	○	○
종조사「やら」	○	○	○
종조사「よ」	○	○	○
종조사「ね」	○	○	○
종조사「さ」	○	○	○
종조사「かな」	○	○	○
종조사「かしら」	○	○	○
종조사「か」	○	○	○

CHOSUN UNIVERSITY 1946

종조사「かね」	○	○	○
종조사「かい」	○	○	○
종조사「だい」	○	○	○
조동사「だ」	○	○	○
조동사「だろう」	○	○	○
조동사「である」	○	○	○
조동사「らしい」	○	○	○
접미어「たち」	×	○	○
「～ではない」	○	○	○
가정표현「なら」	○	○	○
「～かもしれない」	○	○	○

(○ : 쓰임, × : 쓰이지 않음 ＊ : 특별한 경우에만 쓰임)

이상으로 형식명사 「こと」「もの」「の」에 선・후행하는 요소를 살펴보았다.

다음은 결과적으로 접속할 때 일어나는 구문상의 제약과 문제점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우선 선행요소의 경우, 다음과 같은 제약이 생긴다. 단정 조동사 연체형 표현의「な」나 조사「の」자체가 선행요소이지만 「な」나 조사「の」가 또 하나의 선행요소를 가져야만 쓰일 수 있는 제약을 가지게 되므로 「こと、もの、まま」등과 함께 사용되는 것이다. 한편, 「형용동사」「ようだ」「そうだ」는「こと」「もの」「の」앞에 접속할 때 활용을 하는 제약을 보이며, 「同じだ」「べきだ」는「こと、もの」앞에 접속할 때「だ」가 탈락되어 쓰이고「の」앞에 접속할 때 어미「だ」가「な」로 바뀌어야만 쓰이는 제약을 가지고 있다.

다음으로 후행요소의 경우「こと」「もの」「の」와의 접속에 있어서 대체로 제약을 보이지 않았지만 종조사「だい」의 앞에 「の」가 접속할 때「ん」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았다. 종조사「か」에 접속할 때는 「もの」가「もん」이 되는 경우가 많이 보였다.

그리고 특별한 경우에만 한정되어 쓰이는 제약을 보인 경우는 선행요소에서는 연체사「ある」, 양태「そうだ」,「である」가 있고 후행요소에서는「として」부조사「さえ、すら、まで」「らしい」등이 있다. 선행요소에서 제약을 보인 연체사

CHOSUN UNIVERSITY 1946

「ある」, 양태「そうだ」는「こと」에 접속할 때 제약을 나타내고 나머지「である」,「として」,「さえ、すら、まで」,「らしい」는「の」에 접속할 때 생기는 제약을 나타낸다.

마지막으로「こと」와 접속하지 않는 선행요소로는 부조사「だけ」,「な」등이 있고 후행요소로는 접미어「たち」등이 있다. 「もの」와 접속하지 않는 선행요소는「こと」와 접속하지 않는 선행요소와 같다. 「の」와 일치하지 않는 접속하지 않는 선행요소로는 연체사「あらゆる、この、その、あの、どの」, 조사「の」등이 있으며 후행요소로는 격조사「の」등이 있다.

또한, 형식명사「こと」「もの」「の」에 접속하지 않는 선・후행요소들은 단어 자체의 성격으로 인해 붙지 않는 경우도 있다.

CHOSUN UNIVERSITY 1946

제 6 장 결 론

본고에서는 형식명사의 정의와 형식명사 「こと」「もの」「の」의 의미와 용법을 알아보고 그 각각의 용법 그리고 선・후행요소의 상의점에 관해 비교・고찰해 보았다.

제2장에서는 형식명사의 정의와 특성을 살펴보았다.

일반적으로 형식명사는 명사에 속하지만 단독으로 사용할 수 없고 구체적 의미를 지니지 못하여 수식요소가 없이는 사용할 수 없는 명사로 정의할 수 있었다. 이러한 형식명사의 특성으로는 첫째, 형식명사 그 자체만으로는 독립적으로 쓰일 수 없고, 둘째, 형식명사 앞에 구체적 의미를 나타내 줄 수 있는 연체수식어구(절)이와야 문장이 성립하고, 셋째, 실질명사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형식명사의 경우는 실질명사로서의 의미가 형식명사에 남아있다고 볼 수 있으며, 실질명사를 가지지 않는 형식명사 중에서도 뒤에 나오는 술어부에 따라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있었다.

제3장에서는 형식명사 「こと」「もの」「の」의 의미 및 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러한 형식명사 「こと」「もの」「の」의 의미 및 용법은 크게 실질명사로서 의미 및 용법과 형식명사로서의 의미 및 용법으로 나눌 수 있었다.

우선, 실질명사로서의 의미 및 용법을 살펴보면 「こと」는 실질명사로서 인간생활 속에서 일어나고, 나타나고, 변화하고, 종료하는 현상, 즉 「사건」이나 「사태」를 나타내고,「もの」는 실질명사로서 감각기관에 의해서 파악되어지고 고정되어진 객관적 존재를 나타내어 변화나 변동이 없는 어떤 물체나, 물품, 물질 등을 나타내었다. 그러나「の」는 실질명사로서의 의미는 가지고 있지 않았다.

다음으로 형식명사로서의 의미 및 용법을 살펴보면 형식명사로서의 의미 및 용법은 또 다시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었는데 그 첫 번째 용법은 실질명사를 대용하는 용법 이며 두 번째 용법은 연체수식어구(절)을 받아서 선행문을 명사화시키는 용법이었다.

첫 번째 용법인 실질명사를 대용하는 용법에서 「こと」는 추상적인 사항을 나

CHOSUN UNIVERSITY 1946

타낼 때 사용하고 이것은 ①말로 표현 가능한 내용, 의미, 이유. ②세상에 나타나는 사상, 현상, 사건. ③어떤 대상에 관련된 내용, 사항. ④사태, 사정. ⑤행위, 행동 등의 의미를 나타내었다. 「もの」는 구체적이며 감각적으로 포착 가능한 대상이나 물건을 나타낼 때 사용하고 이것은 ①사물, 물품. ②말(ことば), 글이나 문장의 내용. ③사리, 도리. ④소유물. ⑤인물. ⑥요괴, 혼, 귀신 등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형식명사의 의미로 쓰일 경우, 「こと」와「もの」는 한자를 사용하지 않는 편이 좋다. 그리고 「の」는 실질명사로서의 의미와 용법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실질명사를 대용하는 용법 역시 가지고 있지 않았다.

두 번째 용법인 연체수식어구(절)을 받아서 선행문을 체언화(명사화) 시키는 용법에서의「こと」는 선행하는 수식어의 용언적 상태를「～ということ」「～という事實」라고 하는 체언적인 개념으로 바꾸는「こと」라고 할 수 있으며, 선행하는 말을 체언화 하여 각종의 격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그리고 「こと」는「ある、なる、する、できる」등과 결합하여 「ことがある、ことになる、ことにする、ことができる」와 같이 관용적으로도 쓰였다. 「もの」는 연체수식어구(절)을 받아서 선행문을 체언화(명사화)시키는 용법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리고 「の」도「こと」와 마찬가지로 선행하는 문이나 구를 체언화 하는 용법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명사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선행하는 연체수식어구(절)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지는 못하고 단지 체언화 시키는 용법만을 가지고 있었다.

제4장에서는 형식명사「こと」「もの」「の」의 용법을 비교하였는데 「こと」와「もの」의 비교, 「こと」와「の」의 비교, 「もの」와「の」의 비교와 같이 세 가지의 경우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첫 번째,「こと」와「もの」의 비교에서「こと」의 대상은 명제로 표현되는 내용과 동사, 형용사로 표현되는 동작, 작용, 변화, 상태, 속성 등 일반적으로 개념으로써 표현되는 것이고「もの」가 개별적인 것에 비하여 「こと」는 일반적이고,「もの」가 감각이나 그에 준하는 심리작용에 의해서 파악되어지는 대상인데 반해,「こと」는 사고에 의해서 파악되어지는 대상, 발화, 지식의 내용을 나타내었다.

두 번째, 「こと」와「の」의 비교에서 주절의 술어로「전달」, 「의지」, 「사

CHOSUN UNIVERSITY 1946

고」를 나타내는 동사가 오면「こと」만 사용가능하고 선행하는 문장의 내용과 주절 동사의 내용이 서로 다른 장면에서 성립하였다. 그리고 주절의 술어로「지각」,「구체적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가 오면「の」만 사용가능하였으며, 이러한 술어는 행위주체와 선행문이 동일한 장면에 있어야 성립이 가능하였다. 그리고「인식」을 나타내는 동사가 오면 「こと」와「の」둘 다 사용가능하였다.

세 번째, 「もの」와「の」의 비교에서 「もの」와「の」는 구체적인 개체를 나타내는 경우 함께 쓰이며, 그 내용이 일반적인지 선택적・개별적인지에 따라 서로 구별되어 사용된다고 할 수 있었다.

제5장에서는 형식명사 「こと」「もの」「の」의 선・후행요소를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형식명사 「こと」「もの」「の」의 선행요소로는 형용사, 형용동사, 동사, 연체사「ある、いろいろな、あらゆる、この、その、あの、どの」,「こんな、そんな、あんな、どんな」그리고 조사「だけ」, 조동사「ない・ぬ、らしい、たい、ようだ、そうだ、た(だ)、である」, 「～という」, 단정조동사의 연체형 표현 「な」, 조사「の」등 여러 가지 요소가 있었다.

그리고 후행요소로는 동사「だ、だろう、ようだ、である、らしい」, 격조사「が、の、を、に、へ、と、から、より、で、でも、や、として」,접속조사「だから、と」, 부조사「は、か、も、だけ、さえ、しか、すら、まで、など、なんか、こそ、ばかり、ぐらい、とか、ほど、やら」, 종조사「よ、ね、さ、かな、かしら、か、かい、だい、かね」, 복수접미어「たち」, 가정표현「なら」, 「～ではない」,「～かもしれない」등이 있었다.

이상 형식명사「こと」「もの」「の」각각의 의미와 용법을 알아보고, 그 용법과 선・후행요소의 비교를 통하여 형식명사「こと」「もの」「の」에 대하여 고찰하고 정리해 보았다. 형식명사「こと」「もの」「の」의 의미와 용법에 따른 오용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으나 본고에서 다루지 못함을 아쉽게 생각하며 이러한 오용례에 관해서는 향후 연구과제로 삼고자 한다.

CHOSUN UNIVERSITY 1946

참고문헌

寺村秀夫 『日本語のシンタクス意味Ⅱ』くろしお出版, 1984.

松下大三郎 『改善標準日本語文法』勉誠社, 1984.

倉持保男 『日本語教育事典』日本語教育學會編, 1982.

寺村秀夫 『日本語文法(下)』國立國語研究所, 1984.

松村明 『日本文法大辭典』明治書院, 1981.

森田良行 『基礎日本語2』角川書店, 1980.

三浦つとむ 『日本語の文法』頸草書房, 1975.

奥律敬一郎 『生成日本文法論』大修館書店, 1974.

金公七 『日本文法論』塔出版社, 1980.

井上和子 『變形文法と日本語(上)』 大修館書店, 1981.

久野暲 『日本文法研究』大修館, 1978.

佐久間鼎 『現代日本語の表現と語法』くろしお出版, 1967.

時枝誠記 『日本文法口語編』岩波新書, 1950.

文化廳 『外國人のため基本語用例辭典』大藏省印刷局, 1978.

松下大三郎 『標準日本口語法』 勉誠社, 1977.

山田孝雄 『日本文法學概論』 寶文館, 1936.

山田孝雄 『日本文法論』 寶文館, 1984.

橋本進吉 『改制新文典別記文語編』富山房, 1939.

名柄迪외 『外國人のための日本語例文問題シリーズ2形式名詞』
荒竹出版, 1987.

池上嘉彦 『「する」と「なる」の言語學』大修館書店, 1981.

金田一春彦, 『日本語セミナー　二』筑摩書房, 1983.

大韓教科書出版社 『日本語用例辭典』 大修館書店, 1982.

CHOSUN UNIVERSITY 1946

<학위 및 학술지 논문>

大島資生「複文構造にあらわれる「こと」と「の」について」『東京大学留学生センター紀要』(第 6 号), 1982

佐治圭三「の」の本質ー「こと」「もの」との対比からー」」『日本語学』(vol.12-10), 明治書院, 1993.

김경규 「日本語에 있어서 形式名詞〈こと・もの〉에 대한 고찰」
-韓國의 高等學校 日本語 敎科書를 中心으로-,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4.

김연주 「「こと, もの. の」研究」-先・後行要素와 混用을 中心으로-,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7.

김영순 「形式名詞の言語運用」-「こと, の, もの」-
紀全女子專門大學 논문집 15('95.9) pp.51-64.

남영복 「日本語の形式名詞「こと」,「もの」,「の」について」
人文科學研究 9('91.2) pp.41-60.

南英福 「日本語の「こと」,「の」と韓國語の'것'の對照考察 」
-名詞化の場合- 외국어교육연구 6('91.2) pp.107-123, 1991.

라영숙 「일본어 조사 「の」의 문법성 연구」- 일본어 교육의 관점에서-
한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3.

박사용 「일본어의 형식명사에 대한 고찰」
-특히 한국 일본어 교과서에 나타난 「こと」와 「もの」를 中心으로-,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0.

오유숙 「보어절의 「こと」「の」연구」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4.

윤강구・안병곤「日本語の 形式名詞「こと、もの、の」意味と文法特性について」
慶尙大學校 論文集(人文系編), 31,1('92.7) pp.45-55.

윤강구 「日本語の形式名詞「こと, の, もの」とそれに對応する韓國語」
日語敎育 Vol.7 No.1, 1991.

윤주쾌 「日本語の形式名詞 「こと」「もの」「の」に關 する一考察」

CHOSUN UNIVERSITY 1946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882.

이은아 「「の」의 기능에 관한 고찰」,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0.

이지숙 「形式名詞 「こと」「もの」의 計量的 分析」계명대학교 국제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7.

이현선 「形式名詞 「こと」「もの」「の」に 關する 考察」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2.

정길임 「체언적용법의 형식어에 관한 연구」-「こと」「もの」「の」를 中心으로-,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2.

조가희 「形式名詞「の」に關する考察」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0.

허경철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의 「もの」·「こと」·「の」 오용분석」, 명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0

<용례출전>

俵万智외 3명『일본중학교 교과서선(상)』다락원, 2007.

宮沢賢治외 2명 『일본중학교 교과서선(하)』다락원, 2007.

日本聖書協会 『日本聖書(新共同訳)』日本聖書協会, 2000.

寺村秀夫 『日本語のシンタクスと意味Ⅱ』くろしお出版, 2003.

日本語教育学会『日本語教育辞典』大修舘書店, 2005.

安田吉実『엣센스 일한사전』민중서림, 1998.

金田一春彦 『現代新国語辞典』学研, 2003.

グループジャマシイ『日本語文型辞典』くろしお出版, 2002.

朝日新聞 社説 2007년 9월1일 ~ 9월 30일.

天声人語 2007년 9월 1일 ~ 9월 30일.

TBS テレビ『花より男子 2』TBS テレビ, 2007.

フジテレビ『のだめカンタービレー』フジテレビ, 2007.

CHOSUN UNIVERSITY 1946

フジテレビ 『hero』フジテレビ, 2001.

日本テレビ 『派遣の品格』日本テレビ, 2007.

新城毅彦『ただ、君を愛してる』新城毅彦, 2006.

宮崎駿『ハウルの動く城』宮崎駿, 2004.

CHOSUN UNIVERSITY 1946

저작물 이용 허락서

학 과	일어교육	학 번	20058042	과 정	석사
성명	한글: 오 형 여	한문: 吳 炯 如	영문: Oh Hyung-yeo		
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2동 화정주공아파트 9동 506호				
연락처	H.P : 011.9222.7221 집전화 : 062)368.0555 E-MAIL : fri221@nate.com				
논문제목	한글 : 일본어 형식명사「こと,もの,の」용법 비교에 관한 연구 영문 : A Study on Comparing the Usage of Japanese Bound Nouns 「koto, mono, no」				

본인이 저작한 위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 아래 조선대학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동의합니다.

- 다 음 -

1. 저작물의 DB구축 및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의 공개를 위한 저작물의 복제, 기억 장치에의 저장, 전송 등을 허락함.
2. 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편집・형식상의 변경을 허락함. 다만, 저작물의 내용변경은 금지함.
3. 배포・전송된 저작물의 영리적 목적을 위한 복제, 저장, 전송 등은 금지함.
4. 저작물에 대한 이용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종료 3개월 이내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저작물의 이용기간을 계속 연장함.
5.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출판을 허락을 하였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대학에 이를 통보함.
6. 조선대학교는 저작물의 이용허락 이후 해당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7. 소속대학의 협정기관에 저작물의 제공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저작물의 전송・출력을 허락함.

2008 년 1 월 일

저작자 : 오 형 여 (서명 또는 인)

조선대학교 총장 귀하